관세청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11. 27.(금) 09:00

K-관세행정시스템, 중남미 수출 교두보 확보...
과테말라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개통

- 관세청, 5개년간 69억 원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완료...운영·유지보수까지 원스톱 지원
- 과테말라와의 디지털 협력을 발판삼아 중남미지역 유니패스 확산 추진

관세청은 11월 26일(현지 시각) 과테말라시티 소재 과테말라 조세청(SAT)에서 '과테말라 전자통관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비롯한 대표단과 김득환 주과테말라 대사가 참석했으며, 과테말라 측에서는 웨르네르 오발레(Werner Ovalle) 조세청장과 조세청(SAT)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17개국에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수출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총 69억 원 규모의 '과테말라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5개년에 걸쳐 지원된 이번 사업을 통해 △위험관리시스템 및 테이터 통합·관리·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 고도화 △화물관리시스템 구축 △세관문서 직접 전송 포털 구축 등 핵심 관세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11년 1차 협력 사업(위험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DW) 구축)에 이은 과테말라와의 두 번째 정보화 협력으로, 관세청 무상원조 사업 최초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사후 운영·유지보수('25~'26년) 단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범위에 포함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전자통관시스템 개통이 과테말라 관세행정의 현대화와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한국과 과테말라 양국 관세당국 간의 협력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웨르네르 오발레 과테말라 조세청장은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 덕분에 고위험 화물은 더욱 정밀하게 선별하고, 저위험 화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국 관세청의 기술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 기반 위험관리 고도화’와 ‘국가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구축 협력’을 발판 삼아, 중남미 지역으로 해외 정보화 사업 및 유니패스(UNI-PASS) 확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재붕 (042-481-7760)
		담당자	사무관	남상호 (042-481-77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